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신동규 (동아대)

〈目次〉

- I. 머리말
- II. 한일병탄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 III. 왜곡된 침략 기억의 전승과 고착
- IV. 엽서에 그려진 도안의 의미
- V. 미화·왜곡된 한일병탄의 이미지
- VI.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하면서 기념으로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이후 문의에 따라 ‘엽서’로 약칭)를 중심으로 한일병탄을 어떻게 선전했으며, 또 어떻게 병탄의 실상이 왜곡되어 표상화되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본론에 앞서 본고에서의 사용 용어와 사진그림엽서 분류, 한일병탄 엽서 자료의 제한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첫째, 본고에서는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침탈을 한일병탄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것은 원 자료인 엽서 속의 ‘일한합방’, ‘일한병합’, ‘일한합병’, ‘조선병합’, ‘한국병합’, ‘한국합병’ 등의 용어가 불합리성과 부당함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원 자료의 인용이나 설명에는 자료에 표기된 용어를 따옴표(‘ ’)로 표기하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6379).

사용한다. 둘째, 엽서에 대한 분류와 통칭이다. 엽서는 관에서 발행한 관제엽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사제엽서로 나뉜다. 관제엽서는 다시 ‘통상엽서’(우편요금 이 인쇄되어 있는 엽서)와 ‘관제 사진그림엽서’로 구분되는데, 민간에서는 우편요금 이 인쇄된 통상엽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엽서에는 ‘사제 사진그림엽서’만 존재한다.¹⁾ 따라서 본고의 소재는 사진그림엽서이기 때문에 ‘관제 사진그림엽서’와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주된 대상이 된다. 셋째,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일병탄 엽서는 엽서 상에 위에서 언급한 ‘일한합방’, ‘일한병합’, ‘일한합병’, ‘조선병합’, ‘한국병합’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거나, 한일병탄 기념인이 날인된 엽서만을 대상으로 한다.²⁾

한편, 세계 최초의 관제엽서는 1869년에 오스트리아 육군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자 에마누엘 헤르만(Emmanuel Hermann)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년 10월 1일에 발행한 것이다.³⁾ 뒤를 이어 현재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에서 1870년경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때에 베를린의 사진가 알버트 슈바르츠(Arbert Schwarz) 부부가 고생하는 병참수송의 병사들에게 감동하여 마그테부르크의 인쇄소에 있던 포병부대의 사진을 엽서에 인쇄하여 고향에 보낸 것이 최초의 사진그림엽서로 알려지고 있다.⁴⁾ 이후 엽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일본에서는 1873년 11월 19일 ‘우편엽서종이(郵便ハガキ紙)’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관제엽서(통상엽서, 半錢과 1錢)가 사용되기 시작했다.⁵⁾ 1900

1) 현재 한국 우취계에서는 ‘관제엽서’에 우편요금 이 인쇄된 ‘통상엽서’만을 인정하고 ‘관제 사진그림엽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우표전시회 규정’의해 ‘그림엽서’를 비우취 자료로 인정하는 관례만을 강조한 것으로 ‘관제엽서’라는 본래의 개념 정의에 어긋난 것이며, 금후 엽서에 대한 정의는 재고해야만 한다.

2) 본고에서 사용한 한일병탄 엽서는 모두 필자가 소장한 것이다. 필자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우표와 크리스마스 썸 등을 수집해왔는데, 일제침략기의 엽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집한 것들로 주로 이베이(ebay)와 해외 전문수집가로부터의 직접 구입, 해외 옥션(delcampe, Michael Rogers Inc) 및 일본 야후 옥션, 한국의 코베이(kobay) 등을 통해 수집한 것임을 밝혀 둔다.

3) 樋畑雪湖, 『續日本郵便切手史論』(日本郵券俱樂部, 1933), 8쪽.

4) 樋畑雪湖, 『日本繪葉書思潮』(日本郵券俱樂部, 1936), 2쪽 ; 世馬宏通, 「漏らすメディア」(『ユリイカ』 36-5, 2004), 13쪽.

5) 樋畑雪湖, 앞의 책, 1933, 29-30쪽. 한편 이 엽서는 통칭 ‘테보리하가키(手彫はが

년 10월 1일에는 우편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어 사제엽서의 사용이 허가되면서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제작되었고,⁶⁾ 1902년 6월 18일에는 ‘만국우편연합가맹 25주년’을 기념하여 6종 1세트(5錢)로 최초의 ‘관제 사진그림엽서’가 제작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⁷⁾ 이후 엽서의 본질적인 역할인 문자에 의한 정보전달 이외에 사진그림엽서는 명확한 이미지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가 컸기 때문에 러일전쟁(1904-1905)을 전후하여 전쟁 사진과 전승을 기념한 엽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른바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가 열렸다. 모리 야스히데(毛利康秀)가 언급했듯이 “엽서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매스미디어의 특성”과 “엽서의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퍼스널 미디어의 특성”,⁸⁾ 즉 전자는 화상정보(인쇄된 사진·그림) 전달의 수단으로서, 후자는 개인정보(사적 편지글) 전달의 수단으로서 활성화되면서 엽서는 당대 최고의 미디어로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렇듯 엽서는 당대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었기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엽서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과 검토에는 더 많은 연구 시각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간단히 그간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그림엽서에 관한 연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것은 청일전쟁의 승리에 뒤를 이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엽서의 선전 효과, 즉 엽서가 제국주의의 선전 도구로서 활용되어 일본인의 대내외적인 에스노센트리즘을 강화시켜 나갔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미 1904년에 『ハガキ文學』(日本葉書會,

기)라고 불린다.

6) 浦川和也, 「繪葉書で朝鮮總督府を見る-「朝鮮半島繪葉書」の史的價值と内包された「目差し」」(『朱夏』 18, せらび書房, 2003), 40쪽. ‘사진그림엽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시이 켄도(石井研堂)가 저술한 『改訂増補 明治事物起源』(春陽堂, 1944)의 「私製繪葉書の始」에 의하면, 1900년 10월 5일에 발행된 『今世少年』(1-9)의 부록이었던 「두 소년이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그림(二少年シヤボン球を吹く圖)」이라는 엽서가 그 효시라고 한다.

7) 『官報』(제5678호, 1902년 6월 15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콜렉션.

8) 毛利康秀,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の再検討」(『政経研究』 52-2, 日本大學法學部, 2015), 547-548쪽.

1904-1910)이라는 잡지의 간행을 시작으로 1905년에는 『端書世界』(交信社, 1905.3-1905. 12)라는 잡지가 발행되었고, 동년에는 일본엽서회에서 『ハガキ文學』의 별책으로 『繪葉書大觀』, 1906년에는 『繪葉書趣味』가 발행되었으며, 1909년부터는 출판사와 엽서 전문서점이 중심이 되어 『繪葉書月報』(繪葉書月報社, 1909.4-1910.2), 『繪葉書海』(島田繪葉書店, 1910-1916), 『繪葉書世界』(永井三星堂, 1910.7-?)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등 그야말로 엽서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잡지는 엽서의 분석을 통한 논증이 아니라, 단순히 취미 수집품의 일환으로서 사진과 그림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1920년대 이후에도 엽서를 소재로 한 연구보다는 『記念繪葉書聚錄』(大日本繪葉書月報社, 1926), 『記念繪葉書總目錄』(郵政の友社, 1931) 등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목록과 도록 위주의 연구들이 중심이었다.

다만, 1934년에 체신협회에서 발행한 『逓信省發行の記念郵便繪葉書』(逓信協會)가 이전과는 달리 엽서에 약간의 해설을 붙였는데, 연구라기보다는 일본의 ‘관제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홍보물과 같은 성격으로서 조선 관련은 모두 제외되고 있었다. 가장 큰 성과는 히바타 셋코(樋畑雪湖)의 『日本繪葉書思潮』(日本郵券俱樂部, 1936)인데, ‘사제 사진그림엽서’와 조선의 엽서는 마찬가지로 거의 제외되었지만, 일본에서 엽서의 유행과 ‘관제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논거가 추가되고 있어 선구적인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 관련 엽서에 대한 언급은 조선총독부가 1938년에 조선에서 체신사업의 역사적 현황을 정리한 『朝鮮逓信事業沿革史』(朝鮮總督府逓信局)를 발간하면서 나타났다. 1935년까지 발행된 엽서의 사진을 실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관제 사진그림엽서’에 한정된 것으로 ‘사제 사진그림엽서’는 제외되었으며, 캡션 위주로 2-3줄의 간단한 설명만 붙였을 뿐이고, 한일병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엽서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는데, 1978년에 고모리 다카유키(小森孝之)가 『繪葉書-明治・大正・昭和』(國書刊行會, 1978)에서 근대 일본의 엽서를 소재로 메이지·다이쇼·쇼와라는 세 시대의 격변하는 일본을 소개하면서 비로소 역사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진 위주의 소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건물이나 역사적 특정 사건에 대한 소개가 중심이었다. 이후, 록가쿠 히로시(六角弘)가 『繪はがきが語る明治・大正・昭和史(上・下)』(ビング社, 1981)에서 일본근

대사의 흐름에 따라 엽서를 소개하였고, 시마다 겐조(島田健造)는 『日本記念繪葉書總圖鑑』(日本郵聚出版, 1985)에서 근대 일본의 모든 ‘관제 사진그림엽서’를 종류별·시대별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으나, 역시 ‘사제 사진그림엽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1990년에 들어와서 오가와 주이치(小川壽一)가 『日本繪葉書小史』(表現社, 1990)를 저술하였는데, 엽서를 통한 시대상의 분석과 함께 근대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엽서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있어 엽서가 본격적으로 역사학 연구의 중요 자료로 이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엽서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는데,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엽서만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소개한다든지⁹⁾ 엽서에 그려진 도시나 건물의 이미지를 특화시켜 소개하는 연구¹⁰⁾ 등이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엽서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도록이나 화보 중심¹¹⁾이라는 현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일본의 서양화된 근대의 풍경과 모습의 변화를 사진 위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¹²⁾

이러한 경향은 엽서의 특성상 사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엽서가 역사학 연구의 기본적 자료로서 이용되지 못한 연구방법론과 연구 시각의 한계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본고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한일병탄 관련 엽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의 실상을 연구하려고 보려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해당 지역의 근대화에도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식민지하의 한국 관련 엽서가 일본 중심으로 발행되었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역사학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식민지의 입장에서 엽서에 어떠한 역사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화된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 다만, 코고 에리코(向後恵里

9) 木村松夫・石井敏夫編, 『石井敏夫コレクション-繪はがきが語る關東大地震』(拓殖書房, 1990).

10) 森安正編, 『市街地總覽:明治・大正・昭和あの街この街』(繪はがきを楽しむ, 1995).

11) 林宏樹編, 『ニッポンのろまん繪葉書』(グラフィック社, 2004).

12) 富田昭次, 『繪はがきで見る日本近代』(青弓社, 2005) ; 橋爪紳也, 『繪はがき100年-近代日本ビジュアル・メディア』(朝日新聞社, 2006).

子)가 체신성에서 발행한 ‘日露戰役紀念繪葉書(관제)’ 시리즈를 소재로 삼아 그 발행 경위와 사진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¹³⁾ 우라가와 카즈야(浦川和也)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엽서를 통한 일본의 시각과 인식에 대한 연구,¹⁴⁾ 엽서 이미지의 희귀성과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¹⁵⁾는 본고의 작성에 시사해 준 바가 크다.

한편,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권혁희의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¹⁶⁾이다. 그는 서양의 제국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양에 이식되었고, 이것이 조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엽서에 주목하여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재현의 정치학’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즉, 엽서를 통해 국가주의가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각종 박람회를 통한 근대화의 식민지적 모순과 이미지의 생산 및 복제를 논증하여 서양 근대가 일본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투영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의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으며, 필자 또한 이에 시사 받은 점이 많다. 또한 박미정은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조선관련 사진첩과 ‘제국미술원전람회(帝展)’라는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그림, 그리고 일부의 엽서를 소재로 식민지 조선이 어떠한 이미지로 발현되는지, 또 전쟁총동원시기에 동원체제나 내선일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림이나 사진에 표출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¹⁷⁾ 이외에 이가연이 한일병탄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이른바 ‘시정기념엽서’를 소재로 병탄된 한국의 이미지를 검토하고 있으며,¹⁸⁾ 김국화는 일제침략

13) 向後恵里子, 「逕信省發行日露戰役紀念繪葉書-その實相と意義」(『美術史研究』 45-21,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1972).

14) 浦川和也, 앞의 논문, 2003 ; 同, 「朝鮮半島繪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還』 23, 藤原書店, 2005) ; 同,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朝鮮半島繪葉書と近代日本人の「眼差し」」(『アジア遊學』 111, 勉誠出版, 2008).

15) 毛利康秀, 앞의 논문 ; 中原雄太郎, 「明治の印刷物・新聞と繪はがきの役割」(『印刷雑誌』 88-6, 印刷學會, 2005) ;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新潟縣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2002).

16)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민음사, 2005).

17) 朴美貞, 『諸國支配と朝鮮表象:朝鮮寫眞繪葉書と帝展入選作にみる植民地イメージの傳播』(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4).

18) 이가연,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施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기(1906-1933)의 한국에서 발행된 ‘관제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엽서의 이미지가 어떠한 식민지 조선관과 표상을 도출시켰는지를 검토하고 있어¹⁹⁾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함께 엽서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선행연구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권혁희와 박미정의 연구는 다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한일병탄을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니며, 한일병탄 관련 엽서는 2-3장만을 소개하고 있다. 이가연과 김국화의 연구는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朝鮮遞信事業沿革史』²⁰⁾에 수록된 극히 일부의 엽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사제 사진그림엽서’와 한일병탄 관련 엽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소장된 엽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다량의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으나,²¹⁾ 아쉽게도 캡션 위주의 도록이나 이미지 소개에만 그치고 있으며, 한일병탄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엽서를 통해 분석·검토하거나 일본의 한국관(韓國觀) 내지는 엽서에 활용된 수많은 도안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상황 하에서 한일병탄 관련 엽서가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병탄의 왜곡된 선전과 홍보가 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굴절된 한국관을 이식시켰고, 나아가 일본의 한일병탄의 합리화를 부추기는 소재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한일병탄 엽서를 포함해 약 400여장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한일병탄 관련 엽서는 국내에서 공개된 것이 약 20여 종에 불과하고, 10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라는 희귀성과 고가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중요시되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자료 전체를 역사

이미지」(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8).

19) 김국화,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 1906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5).

20) 朝鮮總督府遞信局, 『朝鮮遞信事業沿革史』(朝鮮總督府遞信局, 1938).

21) 부산박물관 편,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민속원, 2009) ; 부산근대역사관 편,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민속원, 2009) ; 독립기념관 편, 『독립기념관 소장사진자료집-엽서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독립기념관, 2012). 이 세 종류 총 10권의 책들에도 한일병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엽서는 불과 10여장에 불과하다.

연구의 토대적 자료로서 수집·정리·분석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일본에서 공개된 것도 30여 종에 불과한 현실이며, 학술적으로도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간 일제침략기의 한국관련 엽서 28,000여 점 정도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에는 국내외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미발견의 희귀한 한일병탄 관련 엽서 400여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 발행된 한일병탄 관련 엽서가 어느 정도 발행되었는지 수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한일병탄 엽서 약 400여종은 본고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지 않은 자료라고 생각되며, 이들 유형에 대한 시험적 분류도 시도해보고자 한다.

둘째, 한일병탄 엽서의 제작에는 다양한 도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안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또 각기의 도안들이 상호 결합하여 어떠한 형태로 한일병탄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진구황후(神功皇后)·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완용이 도안된 엽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허구적이고 굴절된 역사인식의 본질, 즉 ‘삼한정벌’ 설→임진왜란→‘정한론’→한일병탄이라는 도식으로 합리화되어 선전되고 있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셋째, 이들 엽서를 통해 당시 제국주의 일본이 한일병탄을 어떻게 허구적으로 미화시키면서 선전했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허구 속에서 한일병탄을 어떠한 방향에서 인식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일병탄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본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작업은 400여장의 한일병탄 관련 엽서에 대한 분류이다. 엽서의 도안과 구성 형식에 따라 분류해보면 9가지 유형의 엽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과 엽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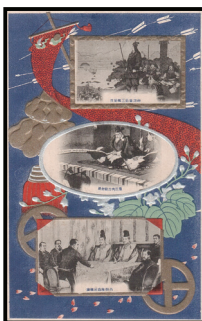
22) 분류 유형 따라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하며 엽서 크기는 당시 대부분 140mm[±3] × 90[±3]mm이었다.



[엽서1] A형: 한일병탄의 주동적 인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엽서2] B형: 한국 황족과 일본 천황
(메이지천황/고종·순종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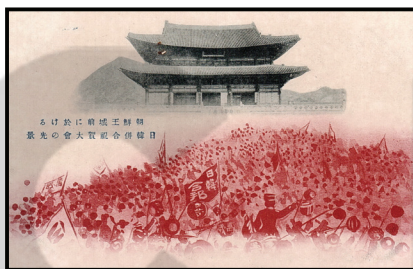
[엽서3] C형: '한반도 침략' 미화
(神功皇后, 豊臣秀吉, 西郷隆盛)



[엽서4] D형: 지도 관련
(병탄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지도)



[엽서5] E형: 한일 양국의 궁성과 건물
(일본의 황거 二重橋와 돈화문)



[엽서6] F형: 한일병탄 축하 모습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일한합병' 축하대회의 광경)

① A형, 한일병탄의 주동적 인물 엽서: 한일병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의 초상화나 사진이 삽입된 엽서들로 대표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가즈라 타로(桂太郎), 고무라쥬타로(小村壽太郎),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를 도안으로 삼은 엽서.

② B형, 대한제국 황족과 메이지천황 엽서: 한일병탄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황제·순종황제와 영친왕,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천황을 소재로 삼은 엽서로 엽서에 따라서는 고종황제를 ‘전한국태황 이태왕(前韓國太皇 李太王[또는 李大王])’, 순종황제를 ‘전한국황제 이왕(前韓國皇帝 李王)’으로 표기하여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시킨 엽서.

③ C형, ‘한반도 침략’ 미화 엽서: 고대시기 진구황후의 이른바 ‘삼한정벌’ 설화, 그리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근대에 들어와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을 주제로 한 엽서들로 역사적 사건의 미화 내지는 왜곡된 도안을 이용해 한일병탄의 합리적 근거로 이용된 엽서.

④ D형, 지도 관련 엽서: 병탄으로 일본의 신영토가 된 한반도 지도를 주제로 한 엽서로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같은 색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한반도에 ‘신영토’라는 문구를 삽입한 엽서.

⑤ E형, 한일 양국의 궁성과 건물 엽서: 대한제국의 궁성인 경복궁(또는 돈화궁), 일본 천황의 궁성인 니주바시(二重橋), 조선통감부 또는 조선총독부 건물 등 양국의 권력 최고 기관의 건물을 도안으로 삼아 병탄을 기념한 엽서.



[엽서7] G형: ‘일한합방의 노래’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 내용 포함)



[엽서8] H형: 한일병탄 신문기사
(상단에 영친왕과 일본태자[大正天皇], 하단에 ‘일한합방 조약 정문’)

⑥ F형, 한일병탄 축하 모습 엽서: 조선과 일본의 민중들이 한일병탄을 축하하는 모습을 소재로 삼은 엽서들로 다수의 허구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

⑦ G형, ‘일한합방의 노래’ 엽서: 한일병탄을 기념한 노래 엽서로 가사에도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가 거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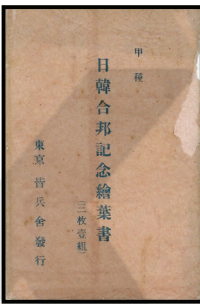


[엽서9] I형: ‘일한합방 기념탑’ 과 발기인 3명의 가족(다보탑을 모방하여 만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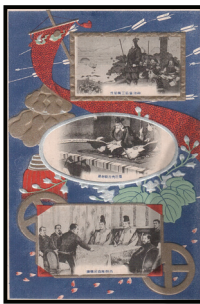
⑧ H형, 한일병탄 신문기사 엽서: 한일병탄의 조약문이나 호외 등이 실린 신문기사를 도안으로 삼아 제작한 엽서로 거의 대부분 병탄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사진이나 초상화가 같이 삽입되어 제작되었음.

⑨ I형, ‘일한합방 기념탑’ 엽서: 이 엽서는 ‘일한합방’ 25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에 도쿄의 메이지 신궁 부근에 세운 이른바 ‘일한합방 기념탑’의 엽서로 1934년에 일회성으로 발행된 것임.

이상 시험적으로 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분류해보았으나, 전체 400여종의 관련 엽서 중에 상당수 이상의 엽서들은 몇 개의 유형이 상호 결합된 복합적 도안의 엽서들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한 [엽서8] H형의 ‘한일병탄 신문기사’ 엽서는 ‘한국 황족과 메이지천황’을 중심으로 한 B형과 결합된 형태인데, 이러한 유형들을 포함해 이하 상세히 검토해보겠다.



[엽서10-1] ‘일한합방’ 기념엽서
봉투(東京皆兵舎, 3장 세트)



[엽서10-2] 神功皇后/豊臣秀吉/
西郷隆盛



[엽서10-3] 明治天皇/伊藤博文/
桂太郎/曾根荒助/寺内正毅



[엽서10-4] 한일병탄 후 ‘일본신지도’



[엽서10-2]의 진구황후 삼한정벌 부분 확대



[엽서10-2]의 ‘豊臣秀吉 裂封冊’ 부분 확대



[엽서10-2]의 사이고 ‘정한론’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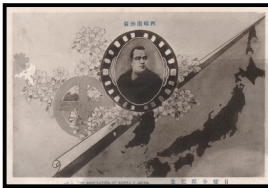
III. 왜곡된 침략 기억의 전승과 고착

다양한 한일병탄 관련 엽서들 중에 흥미를 끄는 것 중의 하나가 C형의 ‘한반도 침략’ 미화 엽서이다. [엽서3](원래는 3장 세트 [그림10] 참조)은 앞

의 분류에서 제시했던 것이지만,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세트 엽서와 함께 다시 살펴본다. [엽서10-2]를 확대해보면(위의 부분 확대도 참조),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도요토미의 조선침략→사이고의 ‘정한론’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고대의 ‘삼한정벌’ 설화, 근세의 도요토미의 조선침략이 일본인들의 추억과 기억 속에 내재되면서 근대 이후 사이고의 ‘정한론’으로 발현되었고, 결국 [엽서10-3·4]에서는 한일병탄으로 실현화되는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엽서11-1] ‘일한합방’ 기념엽서
(神功皇后/豊臣秀吉, 青雲堂)



[엽서11-2] ‘일한합방’ 기념엽서(西郷隆盛)



[엽서11-3] ‘일한합방’ 기념엽서
(伊藤博文/曾根荒助/寺内正毅/이완용)

이러한 사실은 4장 세트인 [엽서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엽서11-1](C형)은 우측에 진구황후와 좌측에 도요토미를 도안하고 있고, [엽서11-2](C+D형)에서는 ‘정한론’을 주장한 다카모리와 함께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같은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반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엽서11-3](A+E형)에서는 일본을 의미하는 떠오르는 태양과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일병탄의 주역이었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병탄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의 초상을 도안함으로써 한일병탄을 기념했고, [엽서11-4](B형)에서는 메이지천황의 아래에 고종황제와 순



[엽서11-4] ‘일한합방’ 기념엽서
(明治天皇/高宗/純宗)

종황제를 ‘前韓國太皇 李大王’과 ‘前韓國皇帝 李王’로 격하시켜 일본에 대한 제국이 편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²³⁾ 기본적으로 [엽서10]과 마찬가지로 C형 엽서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 4장은 A·B·C·D·E형의 엽서 유형이 복합적으로 혼재되면서 한일병탄이 고대의 허구적인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 도요토미의 조선침략, 사이고의 ‘정한론’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인식되면서 합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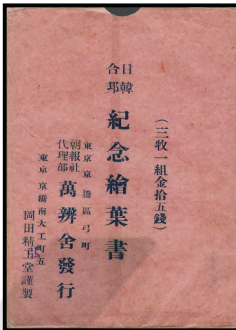
[엽서12-1] ‘일한병합’ 기념엽서(2매 연속 좌측 엽서)

[엽서12-2] ‘일한병합’ 기념엽서(2매 연속 우측 엽서)

위와 같은 논점은 일부만의 엽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형식으로 대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엽서12]과 [엽서13] 역시 마찬가지이다. [엽서12]는 2장의 엽서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연결된 형태로 제작된 것인데, A·B·C·D형이 결합된 엽서로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금색의 국화 문양에 둘러싸인 메이지천황 밑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초상을 아주 작게 도안하였고, 천황의 좌측에서부터 우측 끝으로 ‘삼한정벌’ 설화의 주인공 진구황후→도요토미→사이고→이토→1910년 8월 22일에 이른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던 데라우치 통감파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을 연이어 도안하고 있다. 진구황후가 처음부터 도안되어 있다는 것은 소위 ‘삼한정벌’이라는 왜곡된 역사

23)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병탄 직전에 발표된 「韓皇室待遇詔」(「皇城新聞」, 1910년 8월 27일)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황실 대우에 대해 “前 韓國皇帝는 책봉하여 王으로 삼아 창덕궁 李王이라 칭하고, 뒤를 이어 隆錫을 세습하게 하여 그 종사를 받들게 하며, 皇太子 및 장래의 世嗣를 王世子로 하고, 太皇帝를 太王으로 하여 덕수궁 李王으로 칭하고, 儼匹을 왕비·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로 하여 나란히 황족예우로 대우하여 특히 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일본인들의 한국관에 강렬히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쿄토미와 사이고가 뒤를 이어 도안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한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복속 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인의 한국관에 대한 뿌리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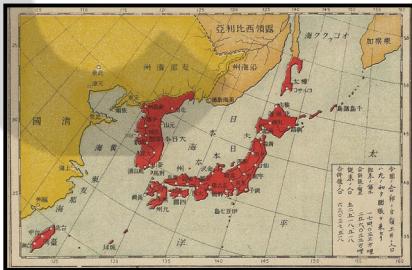
[엽서13-1] '일한합방' 기념엽서
봉투(萬辨舍)



[엽서13-2] '일한합방' 기념엽서
(진구황후/豊臣秀吉/明治天皇)



[엽서13-3] '일한합방' 기념엽서
(伊藤博文/이완용/순종황제/寺内正毅)



[엽서13-4] '일한합방' 기념엽서
(伊藤博文/이완용/순종황제/寺内正毅)

[엽서13]은 3장이 세트로 발행된 것으로 도쿄의 만벤사(萬辨舍)에서 발행한 것이다.²⁴⁾ [엽서13-2](B+C+E형)는 도쿄의 니쥬바시(二重橋)를 배경으로 진구황

24)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엽서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엽서의 봉투를 등한시하여 이미지가 인쇄된 엽서만 무작위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나, 엽서 봉투에는 발행처, 발행 시기, 세트의 구성 등 엽서 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봉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100여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봉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엽서의 발행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후→도요토미→메이지천황을 삽입해 한일병탄을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와 도요토미의 조선침략이라는 연결선상에서 표출시키고 있으며, [엽서13-3](A+B+E형)은 순종황제, 그리고 한일병탄의 주역 이토, 이완용, 데라우치를 통감부 건물을 배경으로 삽입하고 있는데, 역시 복합적 유형의 결합으로 이들에 의해 한일병탄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엽서13-3](D형)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 일본의 영토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병탄 전후의 영토 길이와 인구수를 비교하여 일본이 팽창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²⁵⁾



[엽서4-1] '일한합방'
기념엽서(小村외무대신/神功時代三韓地圖)



[엽서4-2] '일한합방'
기념엽서(曾根통감/豊公時代之朝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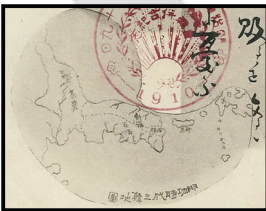
[엽서4-3] '일한합방'
기념엽서(桂총리대신/合邦當時之韓國地圖)



[엽서4-4] '일한합방'
기념엽서(伊藤통감/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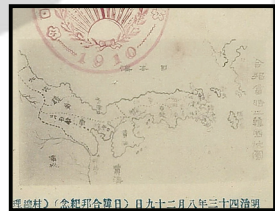
[엽서4-5] '일한합방'
기념엽서(寺內통감/편액)



[엽서4-1]의 부분 확대도
(神功時代三韓地圖)



[엽서4-2]의 부분 확대도
(豊公時代之朝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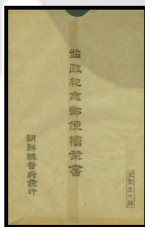
[엽서4-3]의 부분 확대도
(合邦當時之韓國地圖)

연구의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 25) [엽서13-3]의 우측 하단부에는 “今回ノ合邦ニ付領土并ニ人口ハ左ノ如ク膨脹ヲ來セリ。從來ノ領土 174,033方哩(마일)。合併後ノ領土 256,033方哩。從來ノ人口 52,518,518。合併後ノ人口 63,037,518.”라고 인쇄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지는 의문이다. 1910년 당시 조선 인구는 약 1,312만(호구조사)~1,654만(추정치)이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한국인구학회, 2009, 32쪽).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 즉 한일병탄이 진구황후 및 도요토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A형의 한일병탄 주역의 인물 엽서와 D형의 지도 관련 엽서가 결합된 5장 세트 [엽서14]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즉, [엽서14-1]에서는 ‘진구시대의 삼한지도’, [엽서14-2]에서는 ‘도요토미시대의 조선도’라고 하여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격로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엽서14-3]에서는 ‘합방 당시의 한국지도’를 삽입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병탄을 과거의 굴절된 역사 속에서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1910년 8월 22일 소위 ‘한일합방조약’이 강제 조인되었고, 이 조약이 8월 29일에 공포·발효되면서 대한제국은 일제에 병탄되었는데,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始政’을 기념하기 위해 1910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始政紀念郵便繪葉書’²⁶⁾를 발행했다. 그런데, 첫 번째 ‘始政’ 원년의 엽서(2장 세트)는 진구황후의 초상과 함께 진구를 제신으로 삼고 있는 카시이구(香椎宮)를 도안으로 한 엽서가 포함되어 있다([엽서15-2]). 조선총독부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설화 속에 존재하던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이 ‘관제 사 진그림엽서’를 통해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엽서15-1] 시정(원년)
기념엽서 봉투



[엽서15-2] 시정(원년) 기념엽서
(진구황후와 香椎宮)



[엽서15-3] 시정(원년) 기념엽서
(内地及朝鮮之兒童遊戲之圖)

26) ‘始政紀念郵便繪葉書’ 1910년 ‘始政’ 원년 기념엽서 2장 세트의 발행을 시작으로 始政 1주년(1911)~10주년(1921), 15주년(1926), 25주년(1936), 30주년(1941)에 발행되어 총 14차례 걸쳐 37장이 발행되었다. 최근에 발행된 엽서 도록이나 엽서 연구에서도 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30주년(1941) 3장 세트의 엽서에 대해서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C형의 ‘한반도 침략’ 미화 엽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엽서들과 도안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도요토미의 조선침략→사이고의 ‘정한론’을 중심으로 한일병탄 합리화의 역사적 논리로 체계화·고착화되었다는 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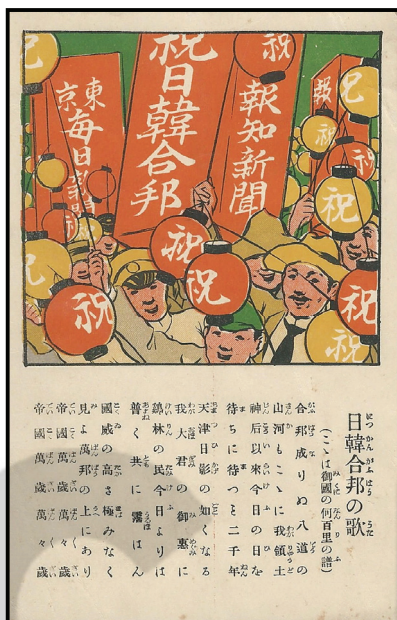
IV. 사진그림엽서에 그려진 도안의 의미

한일병탄 엽서에서 수많은 도안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우선 본고에서는 자주 도안으로 이용되는 닭과 잠자리의 의미에 한정하여 고찰해보겠다. [엽서12]는 앞에서도 제시했는데, 이 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 엽서에는 ‘조선전도’를 삽입하여 제국의 ‘신영토’가 된 한반도를 도안하고 있으며, 엽서의 중앙 하단부에는 어두운 바탕에 암수의 닭 한 쌍과 함께 엽서 2장이 연결된 중앙부에는 잠자리를 도안하고 있다. 왜 닭과 잠자리를 한일병탄 기념엽서에 도안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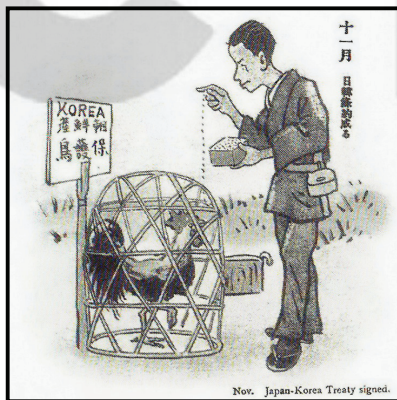
우선 닭을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닭은 고대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른바 ‘이와토 전설(岩戸傳説)’, 즉 태양신 아마테라스노 오미카미(天照大神)가 동생 스사노오노 미코토(素戔鳴尊)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석굴에 들어가 세상이 암흑이 되었는데, 닭들이 동굴 앞에서 울어 오미카미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고, 이후 세상이 다시 밝아져 모든 재앙이 사라졌다는 전설의 소재이다. 이 전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실린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상징인 태양을 다시 뜨게 하는데 일조한 것이 닭이기 때문에 일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다만, 한일병탄 관련 엽서에서의 닭 도안은 고대 신화 속에서의 전설적인 닭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조선 또는 한국)를 의미하는 것이다.²⁷⁾ 예부터 일본에

27) 닭이 한반도, 잠자리가 일본을 의미한다는 시각에 대해 필자는 애매한 입장에 있었으나, 필자가 일본사학회 제81회 월례발표회에서 본고를 발표했을 때(2017년 3월 18일,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 302호), 토론을 맡아주신 한정선 선생님의 지적, 그리고 박경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 ‘닭=한반도(한국·조선)’, ‘잠자리=일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를 빌려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서 신라를 ‘鷄林’이라고 불러왔고, 또 [엽서16]의 ‘일한합방의 노래’ 엽서를 보면, 노래 가사에 “합방되지 않던 팔도의 산하도 지금은 우리 영토 神功 이래 오늘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린 지 이천년. 눈부신 태양과 같은 우리 大君(천황)의 은혜로 鷄林의 君(한반도·한국 또는 조선의 왕) 오늘부터는 널리 함께 은혜를 입는구나. 국위양양 높디높아 보라, 만방의 위에 있구나. 제국 만세 만만세, 제국 만세 만만세.”라고 하여 ‘鷄林·한국 또는 조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닭이 한반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래 가사의 문구에 약간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일한합방의 노래’에서도 ‘鷄林의 民’이라고 하여 鷄林 즉 닭이 한반도로서 한국 또는 조선을 표상화하고 있다([엽서7]과 [엽서17] 참조). 이에 대해서는 한상일과 한정선도 1905년 12월 15일의 『東京パック』라는 잡지의 삽화([그림1])를 인용해 “닭이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있다. 이것은 을사강제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이 조선을 철저히 관라·감독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²⁸⁾라고 하여 닭이 조선을 의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엽서6] ‘일한합방의 노래’ 엽서



[그림1] 「日韓條約成る」

28) 韓相一·韓程善, 『漫畫に描かれた日本帝國-「韓國併合」とアジア認識』(明石書店, 2010), 152쪽. [그림1]은 여기서 재인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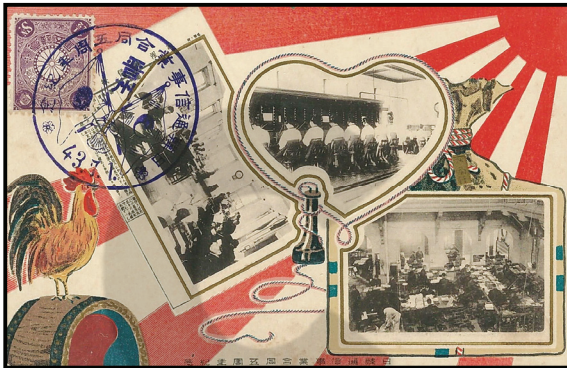
[엽서7] '일한합방' 기념 엽서 봉투로 하단에 '일한합방의 노래' 있음



[엽서18] 한국 '縦貫' 철도개통 기념엽서



[엽서19] '대한국황제폐하어순행' 기념 엽서(닭과 순종황제)



[엽서20] '일한통신사업합동5주년' 기념엽서 (우편·전신·전화 업무의 상황, 왼쪽 하단에 닭이 도안되어 있음)



[엽서21-1] '일한합방' 기념엽서 (닭과 병탄된 한반도 지도 등)



[엽서21-2] '일한합방' 기념엽서(닭과 잠자리 등)

이렇게 닭이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일반화된 현상으로 1908년 '한국 종관철도개통기념' 엽서인 [엽서18], 1909년에 '대한국황제폐하어순행'을 기념 (2월 3일 개성 순행)하여 발행한 [엽서19], 병탄 직전인 1910년 7월 1일에 통

감부가 발행한 ‘일한통신사업합동5주년기념’의 [엽서20]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앞에서 소개한 [엽서11-3]과 [엽서13-3]에도 닭이 그려져 있고, 그밖에도 [엽서21-1·2]에 보이듯이 일본저축은행에서 한일병탄을 기념하여 증정품으로 발행한 2장 세트의 엽서에도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병탄된 한반도 지도를 비롯해 닭과 잠자리가 삽입되어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엽서12]와 [엽서21-4]에는 잠자리가 도안되어 있는데, 잠자리는 앞으로만 전진하고 후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해충을 포식하는 벌레로 일본에서는 ‘승리의 곤충(勝ち虫)’으로 불린다. 더욱이 『고사기』에는 유랴쿠(雄略) 천황이 사냥을 나갔다가 등애가 팔을 찌르자 잠자리가 날아와서 잡아먹었다는 일화²⁹⁾가 있을 정도로 천황 가문과 친숙한 곤충인데, 戰國時代에는 불퇴의 상징으로 갑옷과 칼 등의 무구나 깃발 장식에 이용되었으며, 이후 무사들이 즐겨하는 장식의 소재가 되었다([그림2·3·4]³⁰⁾ 참조).



[그림2] 에도시대 잠자리 문양 투구



[그림3] 17세기 잠자리 문양 투구



[그림4] 에도시대 잠자리 문양의 칼 장식

특히, 『箋註倭名類聚抄』(1883)의 잠자리(蜻蛉) 항목에는 “가게로후(加偈呂布, 잠자리의 명칭의 하나)는 예부터 아키즈(阿岐豆)라고 부르는데, 아키즈시마(秋津島)의 명칭은 잠자리(蜻蛉)로부터 나온 것이다. … 지금은 속세에서 토무보우(止无保宇=톰보[トンボ]=잠자리)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袖中抄』(헤이안[平

29) 『古事記』(下卷), 『雄略天皇記』.

30) [그림1]은 高知縣歴史民族資料館 소장, [그림2]는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컬렉션 소장(<http://www2.artsimia.org/blogs/blog/2012/12/05/the-exotic-dragonfly-helmet/>), [그림3]은 ‘일본야후옥션’ 물품의 칼장식(물품ID: j424914231).

安] 말기-가마쿠라[鎌倉] 초기)와 『和歌童蒙抄』(헤이안 말기)에도 보인다.”³¹⁾라고 기술하고 있어 일본에서 잠자리를 아키즈(秋津)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 친숙한 명칭이기도 했다. 또, 『日本書紀』 진무천황(神武天皇) 조에는 “아아 나라를 손에 넣었다. 좁고 작은 나라이지만, 잠자리(蜻蛉)가 교미하는 듯한 형태로구나. 이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아키즈슈(秋津洲)라는 호칭이 생겼다.”³²⁾라고 기술되어 있어 일본인들에게 잠자리는 일본을 표상하는 대표적 곤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엽서21-4]는 대한제국(=닭)과 일본(=잠자리)이 배경에 그려진 태양으로 대표되는 일본에 ‘합병’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잠자리=일본’이라는 도식은 1910년 한일병탄 당시에 발행된 ‘記章’³³⁾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5] 참조). 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한일병탄 기념엽서는 그야말로 일본의 신화와 전설을 토대로 한 일본의 역사성을 선전 홍보하는 매개체였으며, 나아가 병탄을 일본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엽서가 이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림5] 1910년 8월에 제작된 ‘일한합병기념’ 記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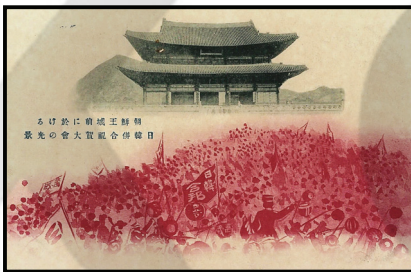
31) 『箋註倭名類聚抄』 卷第8(1883년,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813.2-Ka489s). “加偈呂布古謂之阿岐豆, 秋津島之名依蜻蛉得之. … 今俗呼止无保字, 是名見袖中抄, 童蒙抄.”

32) 『日本書紀』, 神武天皇. “妍哉乎國之獲矣, 雖內木綿之眞咋國, 猶如蜻蛉之臀咕焉, 由是始有秋津洲之號也.”

33) ‘일한합병기념’의 ‘記章’은 일본야후옥션에 ‘richbrainjp5(옥션ID)’라는 출품자가 출품한 것을 2016년 9월 1일에 스캔한 사진임.

V. 미화·왜곡된 한일병탄의 이미지

본장에서는 F형의 한일병탄을 축하 모습의 엽서들을 소재로 한일병탄이 어떠한 허구적 모습으로 왜곡되어 표출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한일병탄 엽서에 보이는 역사적 측면의 허구성과 왜곡에 대해서는 이미 3·4장에서 확인한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이 한일병탄을 축하하는 왜곡된 모습을 표상화시킴으로서 병탄이 침략적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한 것으로 미화시키고 있다는 점, 더욱이 일본인들은 이들 엽서를 판매·홍보함으로써 한일병탄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F형의 엽서들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엽서22] '일한병합' 축하 엽서(조선 王城 앞에서의 '일한병합' 축하대회의 광경)



[엽서23] '일한병합' 축하 엽서(니주바시[二重橋] 앞에서의 '일한병합' 축하제등행렬의 광경)

F형의 엽서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째는 ‘外地’였던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들이 한일병탄을 축하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内地’였던 일본에서 한일병탄을 축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 세트인 [엽서22·23]이다. [엽서22]의 도안은 이미 엽서 분류에서도 소개한 것이지만,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일한병합 축하대회’의 광경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상단에는 근정전의 사진, 하단에는 ‘日韓合併’, ‘萬歲’라고 쓴 깃발과 등불을 들고 환호하며 축하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또 [엽서23]은 일본의 황궁 정면 부근에 위치한 니주바시(二重橋) 앞에서 ‘일한병합’ 축하 제등행렬의 광경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단에는

니쥬바시의 사진, 하단에는 제등행렬 모습의 그림을 삽입하고 있다.



[엽서24] '일한합방' 축하 제등행렬 엽서, 報知東每 주최 [엽서25] '일한합방' 축하 제등행렬 엽서, 報知東每 주최

그러나 한일병탄 당시 조선의 근정전 앞에서 등불행사와 같은 축하행사는 없었으며, 일본의 궁성인 니쥬바시(二重橋) 앞에서의 행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엽서23]에 보이는 축하제등 행사는 [엽서24·25]³⁴⁾에서 알 수 있듯이 호치신문(報知新聞)과 도쿄마이니치신문(東京毎日新聞) 주최로도 열리고 있었고, 이와 같은 행사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³⁵⁾ 일본에서 개

34) 주최가 '報知東每'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호치신문(報知新聞)과 도쿄마이니치신문(東京毎日新聞)의 공동 주최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엽서의 사진 속에 이 두 신문사의 명칭이 표기된 제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치신문은 메이지시대 도쿄 5대 일간지 중의 하나였으며, 1909년에는 도쿄마이니치신문까지도 경영하게 되었다. [엽서24]의 우측에는 '祝日韓合併'이라고 쓴 커다란 제등이 있으며, 하단 중앙의 약간 우측의 제등에는 '日韓瓦斯'이라고 하여 일본과 한국이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고 있다. [엽서25]에는 상단 중앙에 「報知新聞」이라고 인쇄된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엽서24]와는 달리 [엽서25]의 하단에는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1910.8.29.)'이라고 한일병탄이 발효된 날짜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 두 엽서의 뒷면 인쇄 형식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엽서로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5) 대표적으로 한일병탄 직후 인 1910년 9월 1일에 일간지 '萬朝報' 주최로 도쿄의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일한병합축하제등행렬'이 있었고(Japan Old Photographs, '日韓併合祝賀提灯行列' 엽서, http://imaginegallery.com/products/detail.php?product_id=2309), 또 제국농회 간사였던 오카다 유타카(岡田温)도 자신의 일지에 1910년 8월 30일에 "마쓰야마시(松山市)에서 축하의 제등행렬이 있었다.", 31일에는 "전날 밤, 마쓰야마시는 일한합방 축하회 제등행렬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川東淸弘, 「帝國農會幹事 岡田温(4)-愛媛縣農會技師時代②」, 『松山大學論

최된 것이고, 남산 주변의 일본인촌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다는 흔적은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엽서22·23]의 하단에 보이는 제등행사 군중들의 모습은 [엽서24·25]에 보이는 군중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의 제등행사 군중들의 모습을 [엽서22·23]에 그림으로 변조하여 삽입함으로써 양국의 군중들이 각기의 궁성 앞에서 얼마나 한일병탄을 기뻐하고 있었는가를 축하하는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엽서16] ‘일한합방의 노래’(G형) 엽서의 그림을 보면, [엽서24]에 보이는 제등행렬 사진을 그림으로 변형시켜 거의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위의 엽서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엽서26·27]에 보이듯이 한일병탄을 조선인과 일본인 아이가 일장기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과 함께 각기 민가에 일장기가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모형물로 만들고 있는데, [엽서26]의 좌측 끝에는 ‘이것을 중외에 널리 전하여 흥하게 하라(之ヲ中外ニ施シテ悻ラス)’는 문구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엽서27]은 [엽서26]을 거의 그대로 모사하여 제작하였는데, 그만큼 한일병탄을 조선인의 자발적인 것으로 미화하고, 또 병탄을 기뻐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엽서26] ‘일한합방’ 기념 모형물 엽서



[엽서27] ‘일한합방’ 기념엽서

한편, 1912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쿄 우에노공원에서는 ‘메이지 기념 척식박람회’가 개최되었고, 박람회장에는 한일병탄 당시 조선의 모습을 모형물로 전시하였다. [엽서28]은 바로 그 모형물의 일부를 엽서로 제작한 것으로 한일병탄을 고지한 벽보(조서나 조약문)를 조선인과 일본인이 읽고 있는

모습이다. 이 박람회 “조선·타이완·간토슈(關東州)·카라후토(사할린)·홋카이도의 製産品을 内地에 소개하여 食産興業의 자산으로 삼고 동시에 食민적 진취사상을 환기한다.”³⁶⁾는 목적에서 개척되었지만, 한일병탄 모형물을 전시함으로써 일본의 팽창을 선전하는



[엽서28] '일한합병' 엽서(1902년 메이지기념박람회 모형물)

기회로도 이용하였으며, 병탄 선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엽서까지 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엽서26·27·28]은 모두 실제의 모습을 표현 것이 아니며, 당시 이러한 모습의 사진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강조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모형이나 그림으로 엽서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왜곡과 허구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한일병탄에 대한 선전과 홍보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발전해갔다. 그것이 바로 [엽서29-1]의 『조선관광 기념일기첩』이라는 엽서첩의 표지이다. 이것은 1910년 8월 29일 병탄 이후 곧바로 일본에서 조직된 ‘조선관광단’의 방문을 기념하여 제작된 엽서첩으로 한일병탄 기념엽서 5장(그중의 1장만 [엽서29-2]로 소개)이 제본되어 있다. 그 표지를 보면 한복을 입은 다수의 조선인들이 일장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병탄을 축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여기에 수록된 [엽서29-2]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빨간색 원형 속에 한반도를 붉은색으로 그려 넣어 병탄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병탄의 조서까지 하단부에 삽입하여 선전하고 있다. 실제 병탄 직후부터 일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조선에 몰려들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조작된 이미지의 선전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의 일본인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과 영토 확장이라는 자만심 속에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미화시켜 가며 점차 망각하기 시작했다.

36) 『中央新聞』(1912년 6월 27일 기사).



[엽서29-1] 한일병탄 기념엽서를 수록한 『조선관광 기념일기첩』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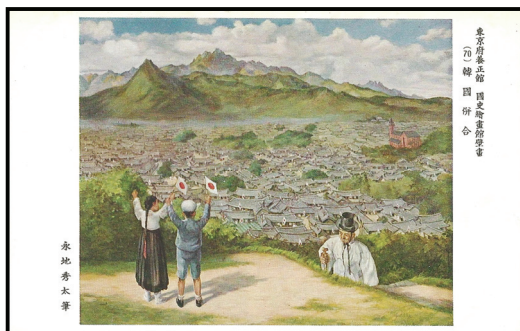


[엽서29-2] 수록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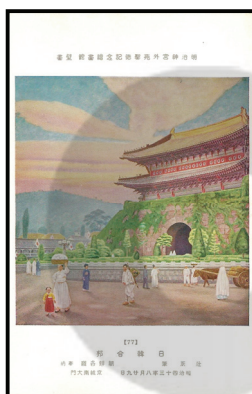
이점은 [엽서30·3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엽서30]의 그림은 육군의 촉탁 화가이며 ‘제국미술원전람회’의 심사위원이었던 나가토치 히데타(永地秀太, 1873-1942)가 ‘한국병합(유채화, 150cm×180cm)’이라는 제명으로 서울 시내 전경이 보이는 언덕에서 소년소녀가 일장기를 들고 만세 부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며, [엽서31]은 1908년 제2회 ‘문부성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이후 ‘제국미술원전람회’의 심사위원으로서 일본 미술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서양화가 쓰지 히사시(辻永, 1884-1974)가 ‘일한합방’이라는 제명으로 한일병탄 당시 남 대문을 소재로 삼아 일장기가 집집마다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다만, 이 두 개의 그림은 모두 병탄 당시에 그린 것이 아니며, 병탄 이후의 일본을 선전하기 위해 그린 일종의 선전 그림이다. [엽서30]의 그림은 1937년에 현 헤이세이천황의 출생 기념으로 도쿄의 아리수가와와미야(有栖川宮) 기념공원에 청소년수련원 요세이칸(養正館)을 건설하였는데, 그곳의 국사회화관(國史繪畫館)에 78개의 일본역사와 관련된 벽서의 하나를 의뢰받아 1933년과 1942년 사이에 그린 것이다.³⁷⁾ 또 [엽서31]의 그림은 메이지신궁(明治神宮) 外苑의 쇼토쿠기념회화관(聖徳記念繪畫館)의 벽화로서 의뢰를 받아 1927년에 그린 것

37) 국사회화관의 벽서는 모두 1955년에 이세(伊勢)의 진구초코칸(神宮徴古館)으로 이관되어 현재 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前島康彦, 『有栖川宮記念公園』(東京都公園協會, 1981), 57쪽; 小堀桂一郎 監修, 『名畫にみる國史の歩み: 東京・養正館舊藏/伊勢・神宮徴古館現藏』(近代出版社, 2000); 國史繪畫集刊行事務局 編, 『伊勢神宮歴史繪畫館國史繪畫集』(國史繪畫集刊行事務局, 1966).

으로 메이지천황의 업적을 기린 80점(일본화 40, 서양화 40) 중의 하나이다. 이들 벽서의 소재가 된 그림들은 모두 자국 일본의 역사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본사 교과서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사의 흐름과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부적인 그림의 내용은 가공된 상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류로서 [엽서 32]³⁸⁾가 있는데, 1911년 1월 1일에 발송된 실제 엽서로서 전보를 선전하기 위한 엽서나 연하엽서로 여겨지는데, 상단에는 집집마다 일장기를 게양하고



[엽서30] '한국병합' 엽서(소년소녀의 만세 부르는 모습)



[엽서31] '일한합방' 엽서(남대문)



[엽서32] '일한합방' 엽서(남대문)

있는 모습, 하단에는 조선의 소녀가 일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엽서30·31]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한일병탄의 분위기를 선전하고 있다. 이점은 이미 엽서 분류 A·B형에서 확인했듯이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와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을 소재로 삼아 대한제국의 자발성에 의해 병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엽서1]과 [엽서11-3], 그리고 친일파 이완용과 대신들을 소재로 한 [엽서33]³⁹⁾과 [엽서

38) 이 엽서의 중앙 부분에 기입된 전보 내용을 보면, “일한합방 후 제일 첫 번째의 신년을 축하함(ニッカンガッペイゴダイノシンネンヲシクス)”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상단의 날짜가 ‘明治44(1911)’ 1월 1일로 되어 있어 한일병탄을 기념하고 있는 엽서라고 판단된다.

34-1·2](3장 세트 중 2장)로부터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한일병탄 축하의 모습은 대부분 조선에서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의 한일 병탄 축하 모습은 조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엽서33] '일한합방' 기념 엽세(친일파: 이완용과 한국의 대관들)

입장에서 한일병탄은 영토 확장과 국위선양이라는 성대한 국가적 축하 행사였기에 [엽서35·36]에 보이듯이 도쿄에서는 '花電車'까지 등장하였고, 앞에서 제시한 [엽서22-25]에서와 같이 각지에서는 축하 제등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묘(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가미타츠오쵸[上龍尾町]의 남주신사[南州神社]) 앞에서는 한일병탄을 축하하는 '奉告祭'까지 열렸다([엽서37]). 더욱이 나가노현(長野縣) 사라시나군(更級郡) 카미야마다 소학교(上山田小學校) 안에는 '한국병합 기념정원'이 만들어질 정도였다([엽서38]). 누가 어떤 의도로 조성했는지 불명확하지만, 소학교에까지 '한국병합 기념정원'을 만들었고, 이것이 다시 엽서로 재생산되었다는 것은 당시 병탄이 어떻게 선전되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엽서34-1] '일한합방' 기념엽서
(순종황제·메이지천황/이완용·한국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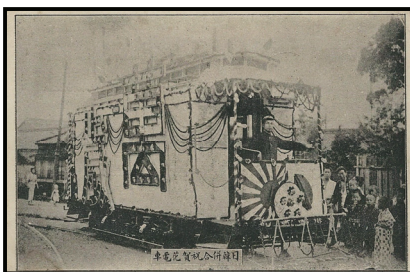


[엽서34-2] '일한합방' 기념엽서
(이완용과 신영토가 된 한반도[조선])

39) 사진은 이완용(1열 중앙), 나머지는 윤덕영·민병석·고영희·박제순·조중응·이병무 등의 친일파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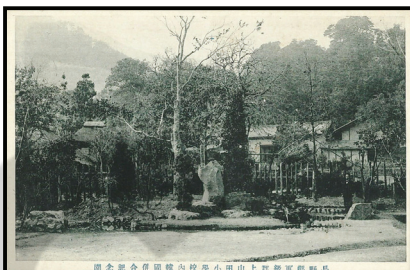
[엽서35] '일한합병' 축하 화전차 엽서



[엽서36] '일한병합' 축하 화전차 엽서



[엽서37] 사이고 다카모리 묘 앞에서 열린
'일한합병' 奉告祭



[엽서38] 나가노현 사라시나군 카미야마다 소학교의
'한국병합 기념정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엽서 도안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外地’인 조선에서의 한일병탄 축하 모습은 전부 그림이나 모형물이고, ‘內地’인 일본에서의 축하모습은 거의 대부분이 사진이라는 점이다. 실제 조선에서 그러한 축하행위가 없었음에도 허구적인 상상으로 엽서를 제작했다는 것, 바로 이점에 한일병탄 엽서에 보이는 침탈의 미화성과 왜곡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일병탄을 기념한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크게 일본사 속에 보이는 왜곡된 침략의 기억이 어떻게 전송되고 고착되었는지, 엽서에 이용된 도안의 의미, 미화 내지 왜곡된 한일병탄의 이미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병탄 엽서의 분류에 대한 시도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안의 소재와 삽입된 인물의 분류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9개 유형의 엽서가 각기의 분류 특징만으로 발행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엽서는 9개의 유형이 상호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행되고 있었다. 이는 한일 병탄 엽서의 당연한 성격으로서 병탄 축하와 기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엽서 도안자 및 발행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엽서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 또는 권력 주체의 선전을 위한 증정 용으로도 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나 홍보용의 역할로서 다양한 제작 기획이 내제되어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한일병탄 C형의 엽서에는 정형화된 한일병탄 합리화 패턴이 내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엽서에서는 과거로부터 전승된 한반도 침탈의 역사, 즉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 등을 소재로 삼아 한반도를 필연적으로 점유해야 할 대상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두 번째 엽서에서는 병탄의 주동자와 친일파를 도안 소재로 삼아 병탄의 현실화를 표현했으며, 세 번째 엽서에서는 병탄된 한반도 지도에 ‘신영토’라는 문구를 표기하거나 일본열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음을 선전하고 있다. 환언하자면, 당시 일본인의 한국관의 근원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에서 출발하여 도요토미의 조선침략과 ‘정한론’을 거치면서 고착되었고, 이들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엽서라는 ‘재현의 미디어’를 통해 1910년 한일병탄을 합리화 내지는 미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한일병탄 엽서에 삽입된 도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닭과 잠자리의 의미를 검토해보았는데, 닭은 ‘鷄林’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즉 한국 내지는 조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잠자리는 천황가의 우호적 곤충인 동시에 ‘승리의 곤충’이라는 불퇴의 상징으로서 일본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재를 한일병탄 엽서에 이용하였다는 것은 엽서가 일본신화라는 전설의 역사를 선전·홍보하는 매개체였던 동시에 한일병탄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나 도요토미의 조선침략, 사이고의 ‘정한론’에 보이듯이 일본의 전통적인 ‘武’의식 속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엽서39-1] '朝鮮併合一週年紀念' 엽서
(순종황제와 메이지천황)



[엽서39-2] '朝鮮併合一週年紀念' 엽서
(伊藤博文·會禰荒助·寺内正毅)



[엽서39-3] '朝鮮併合一週年紀念' 엽서
(올리브 관과 한일병탄 조서)

넷째, 당시 발행된 한일병탄 엽서는 한일병탄이라는 일본의 침략적 사건을 조선인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들 엽서를 F형으로 분류하여 검토했는데, 엽서가 당시 일본 사회의 대중적 정보전달 매개체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일본인들이 병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의 발행은 병탄 이후에도 ‘조선병합 1주년기념’([엽서39-1·2·3])⁴⁰⁾이나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엽서, 또는 일본의 선전용 엽서 발행으로 계속되었고, 점차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침략성을 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언한다면, 사진그림엽서라는 것이 당시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정보전달과 ‘재현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 한일병탄은 당연한 역사적 결과로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당시 제국의 ‘기억’으로 각인되었으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추억’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2017.4.22.

심사완료일자: 2017.5.26.

게재확정일자: 2017.6.05.

40) [엽서39-1·2·3]은 뒷면의 인쇄 형식과 구성이 동일하고, ‘朝鮮併合一週年紀念’이라는 제명도 일치해 같은 3장 세트로 판단되지만, 봉투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히 [엽서39-1·2]는 한일병탄 관계자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엽서39-3]은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관’을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배경으로 병탄 조서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일병탄을 미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古事記』(下卷), 『雄略天皇記』.

『官報』(제5678호, 1902년 6월 15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콜렉션.

『日本書紀』, 神武天皇.

『箋註倭名類聚抄』 卷第8(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813.2-Ka489s).

『中央新聞』(1912년 6월 27일 기사).

『韓皇室待遇詔』(『皇城新聞』, 1910년 8월 27일).

2. 연구서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독립기념관편, 『독립기념관소장사진자료집-엽서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
독립기념관, 2012.

부산근대역사관편,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부산박물관편,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 민속원, 2009.

交信社編, 『端書世界』, 交信社, 1905.3-1905. 12)

橋爪紳也, 『絵はがき100年-近代日本ビジュアル・メディア』, 朝日新聞社, 2006.

國史繪畫集刊行事務局編, 『伊勢神宮歴史繪畫館國史繪畫集』, 國史繪畫集刊行事務局, 1966.

大日本繪葉書月報社編, 『記念繪葉書聚錄』, 大日本繪葉書月報社, 1926.

島田健造, 『日本記念繪葉書總圖鑑』, 日本郵聚出版, 1985.

島田繪葉書店編, 『繪葉書海』, 島田繪葉書店, 1910-1916.

六角弘, 『繪はがきが語る明治・大正・昭和史(上・下)』, ビング社, 1981.

林宏樹編, 『ニッポンのろまん繪葉書』, グラフィック社, 2004.

木村松夫·石井敏夫編, 『石井敏夫コレクション-繪はがきが語る關東大地震』, 拓殖書房, 1990.

朴美貞, 『諸國支配と朝鮮表象:朝鮮寫眞繪葉書と帝展入選作にみる植民地イメージの傳播』,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4.

富田昭次, 『繪はがきで見る日本近代』, 青弓社, 2005.

森安正編, 『市街地總覽:明治・大正・昭和あの街この街』, 繪はがきを楽しむ, 1995.

石井研堂, 『改訂増補 明治事物起源』, 春陽堂, 1944.

小堀桂一郎監修, 『名畫にみる國史の歩み:東京・養正館舊藏/伊勢·神宮徴古館現藏』, 近代
出版社, 2000.

小森孝之, 『繪葉書-明治・大正・昭和』, 國書刊行會, 1978.

小川壽一, 『日本繪葉書小史』, 表現社, 1990.

永井三星堂編, 『繪葉書世界』, 永井三星堂, 1910.7-?.

郵政の友社編, 『記念繪葉書總目錄』, 郵政の友社, 1931.

日本葉書會編, 『ハガキ文學』, 日本葉書會, 1904-1910)

————, 日本葉書會 編, 『繪葉書大觀』, 日本葉書會, 1905.

————, 『繪葉書趣味』, 日本葉書會, 1906.

前島康彦, 『有栖川宮記念公園』, 東京都公園協會, 1981.
朝鮮總督府遞信局編, 『朝鮮遞信事業沿革史』,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
———, 『朝鮮遞信事業沿革史』,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
遞信協會編, 『遞信省發行之記念郵便繪葉書』, 遞信協會, 1934.
樋畑雪湖, 『續日本郵便切手史論』, 日本郵券俱樂部, 1933.
———, 『日本繪葉書思潮』, 日本郵券俱樂部, 1936.
繪葉書月報社編, 『繪葉書月報』, 繪葉書月報社, 1909.4-1910.2.

3. 연구논문

김국화,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 1906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5.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한국인구학회, 2009.
이가연,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施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8.
毛利康秀,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の再検討」, 『政経研究』 52-2, 日本大學法學部, 2015.
世馬宏通, 「漏らすメディア」, 『ユリイカ』 36-5, 2004.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 『新潟縣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2002.
中原雄太郎, 「明治の印刷物・新聞と繪はがきの役割」, 『印刷雑誌』 88-6, 印刷學會, 2005.
川東諄弘, 「帝國農會幹事 岡田溫(4)-愛媛縣農會技師時代②」, 『松山大學論集』 17-2, 松山大學, 2005.
浦川和也, 「朝鮮半島繪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還』 23, 藤原書店, 2005.
———,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朝鮮半島繪葉書と近代日本人の「眼差し」」, 『アジア遊學』 111, 勉誠出版, 2008.
———, 「繪葉書で朝鮮總督府を見る-「朝鮮半島繪葉書」の史的價值と内包された「目差し」」, 『朱夏』 18, せらび書房, 2003.
韓相一·韓程善, 『漫畫に描かれた日本帝國-「韓國併合」とアジア認識』, 明石書店, 2010.
向後恵里子, 「遞信省發行日露戰役紀念繪葉書-その實相と意義」, 『美術史研究』 45-21,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1972.

【Abstract】

Propaganda and distortion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as seen from the picture postcard of modern Japan

Shin Dongkyu

This article examines the Ehagaki, picture postcards, issued in commemoration of Korea-Japan Annexation. By introducing 400 postcards related to the historical event of Korea-Japan Annexation, I argue that these postcards contributed to the rationalization of annexation as a natural and inevitable process for Koreans. For this purpose, I categorize these 400 postcards into 9 types and lay out the visual patterns of rationalization. Considering that Ehagaki was a medium of mass communication in Japanese society, the circulation of postcards shows that many Japanese uncritically accepted the distorted view of Korea-Japan Annexation. This behavior continued with the issuance of various promotional Ehagaki and set the stage for forgetting the annexation's invasiveness.

Key Words:

사진그림엽서, 회엽서, 한일병탄, 제국주의, 선전, 고종황제, 순종황제, 진구황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Picture postcard, Ehagaki, Korea-Japan Annexation, Imperialism, Propaganda, Emperor Gojong, Emperor Sunjong, Jingukogo, Toyotomi Hideyoshi, Saigo Takamori, Ito Hirobumi, Yee Wan Young